

2009 Dance company 김해성

기획공연 **비상**



희  
색  
겨  
울

눈  
쪽  
구  
비

2009. **12. 6** (일) 오후 6시  
부산문화회관 중강당



## 축사

# 아이들에게 꿈을 전하는 문화전도사

어느새 옷깃을 여미며 난롯불이 그리운 계절이 되었습니다.

이맘때가 되면 항상 어릴 적 친구들과 용기종기 모여앉아 난롯불에 고구마도 구워먹고 밤도 구워먹으며 해지는 줄도 모르고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물질문명의 발달과 세월이라는 흔적에 가려 어릴적 동심을 잊고 살지만 우리 모두에게 있어 동심의 기억들은 추억이라는 아련한 두 글자 속에서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요소로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어린이를 위한 놀이춤을 연구하는 춤꾼인 김해성교수는 우리사회가 아직은 살만한 세상임을 일깨워 주고 자라나는 아이들이 꿈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문화전도사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부산대학교 재직시절 박사학위 중이던 김해성 교수는 연구실에서 늦도록 불을 밝히며 연구에 열중하였는데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아이들의 움직임이 곧 놀이라며 어린이를 위한 춤 만들기과 창작수업에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 나와 논하곤 하였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춤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서 연구하고 채록하여 우리아이들에게 한국춤의 아름다움과 가락을 알려주고자 노력하는 학자요, 춤꾼으로서 김해성교수가 그간 이루어온 업적들은 학계에서 논문으로서 또한 참고도서로서 활용되고 학문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하나의 성과물인 창작춤으로서 이시대의 아이들이 처한 현실과 놀이를 향한 갈망 그리고 아이들과 놀아주지 못하는 오늘날 부모들의 현실을 진단해 보고 보다 건강한 사회로서 아이들이 맘껏 뛰어놀 수 있는 자연과 더불어 공존하는 아름다운 세상을 노래하고자 한다하니 이 얼마나 아름다운 작업입니까? 이러한 작업들이 건강하고 밝은 정의사회를 구현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예술적 아름다움을 향미하게 하며, 뛰어난 감성의 발달과 정서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한다면 이보다 뜻 깊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김해성교수의 앞으로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는 바입니다. 지금의 열정과 감성을 가지고 우리사회에서 어린이들이 맘껏 뛰어놀고 건강하게 자라서 사회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고 전인교육의 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이론과 실기 면에서 두각을 나타내어 주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의 공연이 가족구성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공연이 되고 아이들이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한 김해성 교수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엄옥자

국립부산국악원  
무용예술감독  
인간문화재



## 모시는 글

# 따뜻한 가정의 소중함을 느끼게 하는 문화공간...

다사다난했던 올해도 이제 마지막 달력만이 남아 있습니다.

올 한해 신종플루라는 거대한 폭풍으로 인해 나라전체가 적색경보 속에서 각종 행사가 축소되거나 무기한 연장되는 등 때아닌 한파에 피해들이 속출했습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에게는 놀기회가 유난히 줄어들 수밖에 없었던 해이기도 합니다. 하여 오늘의 공연도 준비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본래 이 공연은 관객층을 어린이를 주 관객으로 하여 우리 문화를 체험하고 한 국민으로서의 문화정체성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었지만, 신종플루의 확산으로 인해 어린이들을 공연장에 모으기에 무리가 따랐습니다. 따라서 관객층의 폭을 넓혀 온가족이 함께 이번 공연을 관람하고 현재 우리 어린이들이 처해있는 현실적 문제점들을 짚어보고 부모의 역할과 가족구성원의 역할을 되새겨 볼 수 있으며, 따뜻한 가정의 소중함을 느끼게 하는 문화공간으로서 공연을 준비하였습니다.



김해성무용단은 매년 우리 어린이들에게 한국춤의 아름다움과 재미 그리고 맛을 전하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실험적인 무대를 만들고자 연구하였습니다. 때로는 민간에서 전해오는 민속놀이춤을 아이들이 쉽게 익히고 접할 수 있도록 어린이를 위한 놀이춤으로 변화를 시도하기도 하였고, 우리 전통춤의 아름다움을 아이들에게 전하고자 전통춤을 벌리기도 하였으며, 오늘과 같이 아이들이 처한 시대적 문제점들을 함께 공유해 볼 수 있는 창작춤을 벌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도들로 인해 이 땅의 아이들이 보다 밝고 정서적으로 안정되며 신체적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된다면 그 이상의 보람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의 공연을 위해 보다 아이들의 정서에 다가가고자 자정을 넘긴 시간도 마다않고 수차례의 기획회의를 하고 주말도 없이 연습하며 출연까지 해 주신 변지연선생님과 추억의 한켠으로 던져놓은 무용수들의 동심을 끄집어내고자 부단히 노력해 주신 정진우 선생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언제나 든든한 후원자인 원향춤연구회와 출연해 주신 이동재 선생님을 비롯한 회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김해성무용단 단원들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끝으로 오늘의 공연이 있기까지 춤 연구에 열중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부산여자대학 정남이 총장님께 감사드리며 어린이의 예술문화 교육을 적극 후원해 주시고 든든한 힘이 되어 주시는 김길구 부산YMCA 사무총장님과 이제는 학교가 아닌 부산국립국악원에서 우리 민족의 춤을 지키기 위해 힘쓰시는 스승 엄옥자 교수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지는 못하셨지만 중국 사천대학에 교환교수로 계신 김미숙 교수님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김해성무용단은 우리 춤예술의 아름다움을 모든 아이들이 흥취하게 될 그날까지 연구·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12월 6일  
김해성무용단 예술감독  
부산여자대학 교수 김해성



## 약력

### • 김해성

부산대학교 이학박사, 부산여자대학 아동스포츠과 교수, 김해성무용단 예술감독  
 부산춤이연구회 회장, 인간문화재 엄옥자 원향춤연구회 이사  
 사)한국무용연구회 이사 및 논문편집위원  
 사)대한수중운동협회 상임이사  
 재)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교육위원  
 재)부산YMCA유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부산광역시 우드볼협회 부회장  
 고등학교 국정 체육교과서 심의위원

### • 주요작품

2001. 「꿈몰이 축제」 2002. 「하네나... 두네나...」 2003. 「飛翔」 2004. 「놀이·놀음·노래」  
 2005. 「꽃노래」 2006. 「울림」 2007. 「아이에게...」 2008. 「花月」「뛰어보자, 뛰어보세」  
 2009. 「아류별전」

### 논문

석사학위 논문 2000. 축제예술로서의 '춤'  
 박사학위 논문 2005. 유아 춤놀이의 개념정립과 교육현장 적용방안 연구

### 국제학술발표회

2002. A Study on Children's Play Dance for Application as Korean Dance  
 2003. The study on the Educational value of Jinju Pokuragmu as a children's Play Dance  
 2004. A Study on the Contents of Children's Dance Education in the Kindergarten Education  
 2008. 幼児の教育機関における「ダンス遊び」の授業現況及び教師の専門性の伸張のための要求調査

### 국내학술발표회

2003. 아동놀이무용으로서 진주포구락무의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  
 2005. 유아교육에서 춤 내용의 변화에 관한 연구  
 2006. 유아교육기관의 춤놀이 수업현황과 활성화를 위한 요구조사  
 2007. 치매전문운동지도사 양성 교육과정 구성에 관한 연구  
 2008. 유아의 인지발달을 위한 극적 춤놀이의 교육적 가치  
 2009. 제7차 유치원 교육과정에 따른 한국 민속춤 지도방안에 관한 연구

### 교육과학기술부 지원연구

2003. 신체표현놀이를 통한 유아의 사회성 발달 프로그램 개발연구  
 2007. 치매전문운동지도사 양성 교육과정 개발  
 2007. 치매전문운동지도사 과정 교재개발  
 2005. 유아발달에 적합한 신나는 유아 체육놀이  
 2007. 치매전문운동지도사 가이드

### 일반논문

2003. 신체표현놀이를 통한 유아의 사회성 발달 교육내용에 관한 연구  
 2003. 진주포구락무의 아동놀이적 요소 및 적용에 관한 연구  
 2003. 유아의 사회성 발달을 위한 신체표현놀이에 관한 연구  
 2004. 극적놀이양식의무용을 통한 취약아동의 사회성 발달에 관한 이론적연구  
 2004. 유치원 움직임 교육에 관한 연구  
 2005. 유치원 교육에서 유아 춤놀이의 용어정립에 관한 연구  
 2005. 유아 교육기관에서 '춤놀이'의 활성화를 위한 요구조사  
 2005. 유치원 교육에서 '춤' 내용의 변천에 관한 연구  
 2006. 진주포구락무의 유아 춤놀이적 요소에 관한 연구  
 2007. 유치원에서의 한국 민속춤 지도방안에 관한 연구  
 2007. 치매전문운동지도사 양성 교육과정 구성에 관한 연구  
 2008. DACUM 직무분석을 통한 치매전문운동지도사 양성교육과정 개발연구  
 2008. 유아의 사회성 발달을 위한 극적춤놀이의 교육적 가치  
 2009. 유아교육기관의 춤놀이에 관한 교사의 인식 및 요구조사

### 저서

2002. 유아의 놀이운동  
 2003. 현상교사를 위한 어린이 놀이무용 가이드



## 하나. 다락방 그리고 소녀.

어두운 방안에 소녀가 홀로 앉아 누군가와 열심히 이야기 하고 있다. 하지만 상대는 말이 없이 빙그레 웃으며 소녀의 말을 들어줄 뿐이다. 소녀는 또 다른 누군가와 대화를 시도한다. 역시 소녀의 말에는 더 이상 반응이 없이 그저 물끄러미 그 상대는 바라만 보고 있다. 우리는 어릴 적 외롭게 또는 애타게 누군가를 기다리며 홀로 놀이에 빠져본 적들이 있다. 집으로 돌아와 아직 오지 않은 가족들을 기다리며 혼자놀이에 열중했던 그때를 생각하며 오늘날 우리 아이들에게도 되풀이 되고 있는 실상을 그려보았다.

## 둘. 회색겨울

하나, 둘, 셋 아이들이 거리로 뛰쳐나오고 어느새 술래가 되어 뛰어 다니며 학교를 파하고 가야 되는 피아노학원, 영어학원, 수학학원, 미술학원 등... 아이들에게는 과도한 교육방식에 이미 길들여져있다. 같이 놀던 친구들도 소녀와 마찬가지로 자기가 처한 현실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불만이 극에 달한 아이들은 저마다의 몸짓으로 억눌려온 감정을 표출한다. 아이의 고민을 알게 된 부모는 그 제세야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서로에게 책임전가를 하며 잘잘못을 따진다. 아이의 외로움을 돌아볼 새도 없이 인형을 쥐어주며 부모의 역할을 성실히 이행한 듯 굴었지만, 부모로부터 받은 인형의 숫자가 늘어날수록 아이는 더 깊은 외로움과 정서적 안정을 잃어만 가는 실상을 표현하였다.

## 셋. 초록비

태초에 인간은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까지는 욕심도 없고 죄도 짓지 않은 자연속의 한 부분이었다. 그러한 자연으로부터 출발한 인간이 세속의 이기심, 욕심으로 내 아이의 행복보다는 부모의 욕심을 채우고 그네들이 이루지 못한 부분을 아이에게 전가시키려는 대리만족과 보상심리로 인해 요즘 아이들의 어깨에는 무게를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개의 가방이 드리워져 있다. 더 이상 세속의 찌든 때를 버리고 자연의 어머니 아버지로서 고귀한 생명을 잉태하고 보살피 더 이상의 입시지옥도 없고 부모를 기다리며 홀로 놀아야 하는 아이의 외로움도 떨쳐버리고 건강한 아이로 밝게 뛰어놀 수 있도록 자연의 초록비가 내린다. 초록비를 맞으며 세상은 어른들의 욕심으로 얼룩진 회색겨울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은 우리 아이들이 루돌프 사슴이 이끄는 썰매를 타고 자연속 대지를 거닐 수 있는 아름다운 곳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한다. 상자안을 가득채운 인형의 수보다 더 많은 부모의 사랑을 먹으며 회색의 빌딩숲에 싸여 다음 목적지로 아이를 실어 나르는 봉고차가 아닌 아이들의 희망을 나르는 꽃마차가 거리를 활보할 수 있도록 자연과 더불어 공존하는 밝은 세상을 기대한다.



## 출연자



안무 · 출연 김해성



조안무 · 출연 정진우

자유현대무용단 정단원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전문사



우정출연 변지연

Dance company 연 대표  
원향춤연구회 부회장



이동재

Dance company 연 정단원  
원향춤연구회 재무이사

원향춤연구회 *Dance company* 연



■ 구지연 ■ 신다희 ■ 강민정 ■ 조수미 ■ 김민지 ■ 김미경 ■ 홍병규

*Dance company* 김해성



■ 위수민 ■ 진호숙 ■ 이주영 ■ 반수정 ■ 성유경 ■ 배다혜 ■ 김아롱 ■ 오혜진.